영국적 감성을 담아낸 할리데이비슨

SHAW SPEED & CUSTOM

할리데이비슨 전문 커스텀으로 유명한 SHAW SPEED & CUSTOM은 미국을 대표하는 할리데이비슨 바이크를 영국식으로 재해석, 고객의 감성을 집어넣어 만드는 커스텀으로 유명가도를 달리고 있다

■**글** 장희찬 ■**공식사이트** SHAW SPEED & CUSTOM www.shawspeedandcustom.co.uk

SHAW SPEED & CUSTOM (SS&C)은 남부 잉글랜드에 위치한 할리데이비슨 대리점이다. 대리점 업무도 보지만 그와 함께 할리데이비슨 커스텀 회사도 운영하고 있다. SS&C는 할리데이비슨의 해외 대리점으로서는 최초로 스터지스 AMD 월드 챔피언십의 할리데이비슨 커스텀 부분에서 1위를 수상하였다.

SS&C의 커스텀 작업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정교하다. 하나의 커스텀 작업은 개별적인 프로젝트로서 진행되며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커스텀 작업은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바이크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먼저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아이디어를 낸 뒤, 그 안에서 회사의 목표와 고객의 요구를 절충하여 커스텀을 진행한다. 커스텀작업을 진행하는 기술부는 가게 바로 아래에 위치하여 프로젝트 진행상황이 한눈에 보인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함이다. 커스텀을 하는 동안에도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수정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한다.

◆ SHAW SPEED & CUSTOM의 목표 ◆

1. 디테일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어야한다.
2. 타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한다.
3. 고객과 바이크가 잘 어울려야한다.

SS&C의 가장 큰 장점은 제조부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인해 커스텀에 필요할 때에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커스텀 작업 시에 디자인에 맞는 부품이 없을 때 큰 난관에 부딪힌다. SS&C는 펜더, 연료탱크, 핸들바, 그리고 배기 시스템까지 자체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었다. 이는 고객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로 하여금 SS&C는 단순한 커스텀을 넘어 하나의 새로운 바이크를 만들어낸다.

112~117 SS&C 6p.indd 112 2014-08-25 10:17:08

MINI INTERVIEW

Steven C. Willis SS&C Custom team Principal

Steven C. Willis는 2002년 SS&C가 처음 개장했을 때부터 있던 판매 최고 책임자 겸 커스텀 최고 담당자이다.

Q. 커스터마이징에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A. 아무래도 커스터마이징 회사는 고객의 의뢰를 받아 제작을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의 요구입니다.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Q. 지금까지의 커스텀 바이크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바이크는 무엇입니까?

A. 저희가 만족하는 바이크들은 대부분 저희가 디테일적인 측면에서 만족을 하는 바이크들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2010 할리데이비슨 크로스본 FLSTSB를 1940년대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한 STRIKE TRUE II가 있고요, XL1200N Nightster Sportster를 베이스로 한 Sportster Custom XLST3도 애정이 가는 바이크입니다. 또, 2004 할리데이비슨 FXSTI Standard Softail를 베이스로 하여 모든 면에서 재탄생시킨 Slim Racing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커스터마이징에서 가장 힘든 점은?

A.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의 부족입니다. 유명해지면서 많은 의뢰가 들어오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엔 미처 디테일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측면은 저희가 제작할 때에 자기만족의 부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이 부족할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메일로만 커스텀 요청을 하시고 만나지는 못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메일로만 작업을 할 때에는 완벽하게 커스터마이징을 한다고 해도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Q. 커스터마이징의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신다면?

A. 먼저 이메일로 커스터마이징 요청을 받으면 그에 따른 예상 예산을 고객들에게 보내줍니다. 고객이 예산을 승인한다면 회사로 초대하여 샘플들을 보면서 고객이 원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수정합니다. 그에 따른 필요 부품들의 리스트를 보며 제작할 수 있는 부품들은 제작을 하고 필히 주문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주문을 합니다. 고객에게 사진을 찍어 완성제품을 보여주고 고객이 만족을 하신다면 고객이 바이크를 수령해감으로서 일이 끝납니다.

112~117 SS&C 6p.indd 113 2014-08-25 10:17:14

Shaw Speed
& Custom
Harley-Davidson
MICHELIN
brembo
XR1200TT

brembo
MICHELIN

FAT

SPEED
CUSTOM

SS&C Harley-Davidson XR 1200 TT

SS&C의 최신작중 하나인 XR1200TT는 XR1200을 베이스로 서킷용 레이스 머신으로 만들었다. 페어링은 60년대에 할리데이비슨 라이더였던 칼 레이본에게 영감을 받아 오렌지와 블랙으로 칠해졌다. 프론트 휀더는 스즈키의 모토GP 머신에서 가져와 약간의 수정을 거쳐 사용되었다. 시트는 자체 제작되었으며 레이시한 느낌을 내기위해서 테일 라이트도 다시 제작하였다.

엔진은 매핑으로 약 10마력을 상승시키고, 카울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특이한 머플러는 BMW X6에 쓰이는 아크라포비치 듀얼 머플러 카눌라 방식을 기술지원 받아 커스텀으로 제작되어 장착되었다. 휠은 다이맥에서 제작한 레이싱 휠을 사용하여 경량화 되었으며 RSD Morris 브레이크 로터가 장착되어있다.

포크와 프론트 서스펜션은 올린즈의 최고급 제품이다. 뒷부분에는 올린즈 스프링 댐퍼 실린더 한 쌍이 들어가 있으며 벨트 드라이브는 체인으로 바꾸고 스윙암은 카본으로 마감하였다. 레이시함에 초점을 두었지만 공도 주행도 염두에 두어 테일 부분에 후방감지 카메라와 핸들바 부근에 탈부착 가능한 모니터를 장착했다.

제작 시에 SS&C는 모든 부품을 제거한 뒤에 커스텀에 맞추어 바이크의 밸런스를 맞추어갔고, 불필요한 프레임은 제거하거나 교정했다. 이러한 노력들을 거쳐 XR1200TT는 완벽한 서킷머신으로 재탄생되었다.

Carl Rayborn (1940~1973)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 로드레이싱 최강자중 한명이다.

캘리포니아의 샌디에이고에서 태어난 칼 레이본은 어릴 적 오프로드 대회에 출전한 것을 시작으로 1964년부터는 본격적인 프로레이싱에 뛰어들었다. 미국에서 열린 A.M.A. Grand National Championship에 출전하여 1966년에는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그 후 할리데이비슨 레이싱팀 소속으로 1968년과 1969년 데이토나 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하였고 1970년에는 모터사이클 최고속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1972년 영국과의 대항전에서는 낯선 환경에도 불구하고 6개의 레이스중 3개의 우승을 차지하였다.

1973년 스즈키 팀으로 이적한 그는 스즈키의 머신을 테스트중 엔진고장으로 사고가 발생해 사망하였다. 1999년, AMA Grand National Championship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었다.

Strike True II

할리데이비슨의 2010 소프테일 크로스본을 커스텀 하여 만들어진 이 바이크는 SS&C에서 자체 제작한 리어 펜더, 연료 탱크, 그리고 1940년대 스타일의 낮은 핸들 바와 함께 섬세한 도색 작업으로 1940년대의 스타일을 재현하였다. 2010 런던 국제 모터사이클 쇼에서 할리데이비슨 커스텀부분 1위를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SS&C의 전시관에 전시되어있다.

SHAW SPEED & CUSTOM

Harley Davidson + Bell & Ross Nascafe Racer

미국의 유명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과 영국의 시계브랜드인 벨&로스가 공동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한 이 제품은 할리데이비슨의 FXSTB 소프테일 나이트 트레인을 커스텀 하여 미국적인 감성의 크루저를 영국적 감성의 카페 레이서로 탈바꿈 시켰다. 연료탱크 위에 벨&로스 시계를 장착하고 곳곳에 로고를 새겨 넣었다. 이 바이크는 독특한 디자인으로 많은 매체에 소개되면서 SS&C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Sporster Custom XLST3

2011년식 XL1200N 나잇스터 스크램블러 스타일로 재해석 커스텀 모델. 벨트 드라이브를 체인으로 바꾸고 자체 제작한 스윙암을 사용했다. 엔진 중앙을 가로지르는 스크램블러 머플러는 자체 제작품. 서스펜션은 올린즈를 사용하고 있다. 퍼포먼스 브레이크 시스템은 롤랜드 샌즈 디자인 (Roland Sands Design)의 블랙 옵스 로터에 고정되어있다. 블록패턴의 메첼러 카루2 타이어를 장착하고, 오일탱크 위로 재현한 넘버 플레이트까지 완벽한 스크램블러로 재탄생 했다.

Slim Racing

2004년식 할리데이비슨 FXST1 Standard Softail을 드랙레이서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했다. 레이시한 분위기를 위하여 휠과 로터는 롤랜드 샌즈 디자인 제품을 커스텀하여 사용하였고 리어 펜더나 시트 등도 동사와 협력, 모두 새로 생산해 내었다. XR시리즈의 속도계를 장착하여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레이시함을 강조했다. 초콜릿브라운 계통의 페인팅은 커스텀 제작자가 직접 선택한 색으로 미적 감각이 돋보인다.

Bell & Ross B-Rocket

할리데이비슨 FXS 소프테일 블랙라인을 커스터마이징한 제품이다. Nascafe Racer 이후에 할리데이비슨과 Bell&Ross의 두 번째 콜라보레이션으로서 1960년대의 보네빌 레이스 스타일과 미국의 60년대 실험적인 군사항공학과 매치시킨 바이크이다.

B-Rocket은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풀페어링을 장착하였다. 전후에 장착된 디쉬 휠은 그 속에 디스크 브레이크를 장착하고 있다. 양쪽에 자체 제작한 제트엔진을 연상시키는 터빈은 각각 엔진과 오일쿨러 역할을 한다. 계기판은 벨&로스에서 제작하였다. 콘셉트 모델이며 공도 주행은 염두에 두지 않아 헤드라이트, 테일 라이트, 방향지시등은 장착되지 않았다.

1200 Cross

할리데이비슨 XL1200X 포티에잇을 커스터마이징한 1200 Cross는 1971년식 허스크바나 400 Cross와 McQueens 1964 Triumph TR6 ISDT에서 영감을 얻어 모토크로스 형식으로 커스텀을 하였다. 그것을 기념하듯 허스크바나의 로고 안에 할리데이비슨을 의미하는 H-D를 새겨 넣은 것이 재밌다. 전후 서스펜션을 모토크로스 스타일로 커스텀 하였고, 타이어도 블록패턴을 사용하였다. 60년대 모토크로스의 감성을 더욱 살리기 위하여 배기 시스템을 교체하였다. 기존의 전자장비들을 모두 재배치하여 사용가능하게 했으며, 커스터마이징 후에도 할리데이비슨 특유의 감성들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112~117 SS&C 6p.indd 117 2014-08-25 10:17:32